

---

#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환경정책 동향

---

2020. 5. 29.

(기간 : 5. 25 ~ 5. 29)

 **KEITI**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
국 가 환 경 정 보 센 터

## 동향자료 요약

국가/국제기구	주요 내용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 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난항(5.26)</li> <li>▸ 코로나 19로 트뤼도 총리의 주요 환경공약 중 하나인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강화 조치에 제동이 걸림.. <span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2p</span></li> </ul>
포르투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국 폐기물 증가 대처 위해 외국 폐기물 수입 중단(5.26)</li> <li>▸ 폐기물 관리 수수료가 저렴하여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2020년 말까지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힘. <span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2p</span></li> </ul>
세르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팬데믹 상황에도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진행(5.27)</li> <li>▸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현대식 폐기물 관리 시스템 설립을 목표로 한 '베오그라드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'의 자금조달조건 확정 <span style="float: right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3p</span></li> </ul>

## (캐나다, 포르투갈, 세르비아) 코로나 관련 외신

□ (캐나다) 코로나 19로 트뤼도 총리의 주요 환경공약 중 하나인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강화 조치에 제동(5.26)

- 작년 여름, 트뤼도 총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유럽, 인도,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함.
  - 2021년에 발효예정인 이 조치는 자유당(총리 소속)이 선거철에 내놓은 주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총리의 재집권에 기여함.
- 그러나 코로나 19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일회용 장갑, 마스크, 손소독제 용기 등 개인 보호 장비도 더욱더 제조해야하는 상황임.
  -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임을 인식, 본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힘.

☞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0-05-22/covid-19-waste-complicates-trudeau-s-single-use-plastics-ban?srnd=green>

□ (포르투갈) 자국 내 폐기물 매립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말까지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힘.(5.26)

- 포르투갈은 폐기물 관리 수수료가 저렴하여 타 유럽 국가로부터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음.
  - 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11유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평균인 80유로를 상당히 밑도는 금액임.
  - 또한 포르투갈은 올해 초부터 246,000톤의 쓰레기 반입을 막았고, 새로운 수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힘.
- 포르투갈 정부는 코로나 19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, 올 여름 매립지와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임.

☞ <http://www.euractiv.com/section/circular-economy/news/portugal-suspends-foreign-trash-imports-to-cope-with-own-waste-surge/>

□ (세르비아) 베오그라드에 현대식 폐기물 관리 시스템 설립을 목표로 한 빈카 폐기물에너지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조건 확정(5.27)

○ 베오그라드 중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럽 최대 쓰레기 매립지에는 40년이 넘게 1,000만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.

-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위생 매립장, 폐기물에너지화 플랜트, 건설 폐기물 현대화 처리설비로 재정비될 예정임.

○ 프로젝트의 사업규모는 3억 7,000만 유로로 세르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관협력사업임.

- 용자는 총 2억 9천만 유로로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에서 1억 2825만\* 유로의 신디케이트론(협조용자)을 받음.

※ 7,225만 유로는 EBRD 자체 계좌, 3,500만 유로는 A/B 용자로 Erste Group Bank AG(오스트리아)에서, 2,100만 유로는 양허성 차관으로 Green Energy Special Fund(대만 ICDF)에서 지원.

☞ <https://www.ebrd.com/news/2020/belgrade-wastetoenergy-project-progresses-despite-pandemic-.html>